

## 울릉도 민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ernacular Houses of Ulleung-Island

김찬영\*

Kim, Chan-Ye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vernacular house of Ulleung-Do(island), which shows a different residential culture from the main lan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spatial arrangement, and floor-plan of the house and also tried to understand how these basic elements were changed and why these changes were occurr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ouse was located on the mountain area and was oriented toward the various bearings. Second, the house usually did not have annexes and most residential space was installed on a main building. Third, the floor-plan of the house was developed from a basic two-Kan (with single row) house type in a early settlement period to three-Kan, four-Kan, and five-Kan house types in later periods. While the development of house type proceeded, the main building was functioned as a complex space for both residential and storage purposes. Some houses were gradually developed into a middle and upper-class house shape by installing annexes. The change of the floor-plan and the house size was the result of self-sustained living culture influenc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island and of changes of residential conditions as well.

Keywords : Vernacular Houses, ㄱcharacter shape, Single rows, Main building, Annex building

주요어 : 민가, ㄱ자형, 홑집, 몸채, 부속채

## 1. 서론

### 1. 연구목적

민가는 전통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절대다수 민중들의 집이므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의한 자연환경적 요소는 물론 생업형태와 문화·관습까지 담겨져 있다. 이들의 건축행위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활동하였던 민중 기술자 자신들이며,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건축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공간구성, 재료, 구조 및 시공기술은 그들의 지역·자연환경, 경제성,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울릉도의 민가는 본토와 문화적 교섭이 크게 제

약되어 온 동해 유일의 도서군으로 독특한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형태와 구성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민가를 조사해 입지, 배치, 평면구성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 보고, 이들 민가가 변화해 온 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 2.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생업

#### 1) 울릉도의 개척

울릉도는 울릉·우릉·우피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武陵, 羽陵, 芋陵, 于山 등의 고유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17). 울릉도에 본격적인 개척은 고종 20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공학박사

(1883)<sup>1)</sup>정부 주도하에 강원도 지역에서 7~8호, 경상도 지역에서 10여 호를 이주시키고, 뒤이어 전라도 지역 등에서 4월에 1, 2차로 16호에 54명의 농민을 입도시킨<sup>2)</sup> 것이다. 이들은 주로 농사가 가능한 계곡 상류의 원시림 골짜기를 화전 개간하여 정착하였다.

## 2. 울릉도의 자연환경

울릉도는 섬의 중앙부에 솟은 성인봉(해발 984 m)을 중심으로 900 m 이상의 고봉 4개가 삼각능선을 이루는데, 이것이 3개의 행정구역 경계와 사면 그리고 침식곡, 3개의 하천 수계로 나뉘는 주맥이 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섬내 평균 경사도는 25°로 매우 험준한 편이다. 자연환경은 三無五多<sup>3)</sup>로 섬 전체에는 592종의 식물(경북대학교·울릉도, 독도종합학술조사단, 1977: 6)과 조류 54종, 곤충류 345종에 파충류·양서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울릉도의 기후는 연평균 온도가 12°C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에 적합하나 겨울의 강설량<sup>4)</sup>이 많아 전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 풍속이 4.5 m/s로서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바람과 폭풍일수를 보여 비교적 혹독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후와 지형은 인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가옥형태를 결정한다. 더욱이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면 집안으로 세차게 들이치는 눈을 막을 장치가 필요했다. 또 외부와 교통이 두절될 뿐만 아니라 긴 결빙기간에 장기간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 모든 주생활은 가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이규원의 『鬱陵島檢察日記』에 의하면 당시 울릉도 체류민은 조선인 140명(출신별로 전라도 115명, 강원도 10명, 경상도 10명, 경기도 1명), 일본인 78명이었다. 직업별로 造船(採蓆 포함)이 129명, 採藥이 9명, 刈竹이 2명이었다. 造船者는 일시 거류자로 활동하다가 후일 개척이 이루어지자 이들 중 상당수가 개척민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는 4척의 선박에 백미 60석, 술 2정, 종자용벼 10석, 콩 5석, 조 2석, 팥 1석, 기타 20여종의 물자와 設邑說村을 위해 작업할 목수와 대장장이들과 방어용 총검등 무기도 실어 보냈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1998, 29~30쪽.)

3) 三無-도둑, 거지, 뱀, 五多-香, 風, 美, 水, 石.

4) 적설일수는 70일 내외, 평균 적설량은 약 1 m 내외이며,最深적설량은 2 m가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심설지역이다. 특히 나리분지는 평균적설량이 약 3 m가 넘어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험한 산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거를 이 지역의 자연풍토환경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에게 체험되고 경험된 것을 가옥형태, 구조, 의장 등에 자연스럽게 표현시켜 독특한 주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 3. 생업 형태

울릉도의 생업은 농업으로 경사 15~30°의 산을 개간해 만든 화전경작이 대부분이고, 논은 겨우 4%에 지나지 않는다. 생업은 지역별, 가옥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해방 전부터는 양잠, 60~70년경부터는 약초(인삼, 당귀, 천궁, 지황), 산채, 마늘 등 소득작물재배와 양축농가<sup>5)</sup>가 소득의 대종을 이루었고, 양잠은 1983년부터 폐쇄되었다(울릉군, 1989: 166~172). 이러한 발농사 위주의 생업형태는 파종과 수확시기가 다르고 논농사에 비해 외부마당보다 실내작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민가가 자연환경상 산비탈에 입지한 밭도 있지만 생업상 옥외작업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마당이 좁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광복 후부터 어업이 생활에 큰 몫을 담당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4. 울릉도 민가의 변용

민가의 평면유형은 생활양식과 기술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연환경, 주생업, 가족제도, 인문·사회적 조건도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특징지역 내의 주거문화권에는 하나의 원형이 있고, 여기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생업변화, 생활형태에 따른 주거욕구의 변화로 원형에 다양한 수정과 변용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울릉도 민가형은 험준한 산비탈에 외부와 비교적 고립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모든 주생활을 몸체에 집중되도록 주거공간을 꾸준히 변용시켜왔다. 이는 옥지와 일정한 주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연환

5) 양잠은 1910년경에 倭人島司 茶谷이 권장하여 1970년경까지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준 특화작물이었다. 축우는 1900년경에 울진군에서 반입된 이후 1939년 일본인 島司 馬十一가 처음 영덕군에서 犏牛를 반입한 후 줄곧 축우 수가 점차 늘어 1960년경부터는 농업경제에 큰 혜택을 주었다. 양돈은 自家 婚姻喪祭用으로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육되었다.

표 1. 조사대상 목록

가옥명	소재지	건설시기	비고
나리동 투막집	북면 나리 124	1945년경	민속자료 제56호
나리동 녀와집	북면 나리 112	1940년대	민속자료 제55호
나리동 투막집	북면 나리 117-4	1940년대	문화재자료 제82호
나리동 투막집	북면 나리 307외2필지	1985년개축	문화재자료 제83호
나리동 투막집	북면 나리 316-1	1945년경	민속자료 제57호
쇠수현	북면 현포리 604	1920년	투막+화통집
황부근	북면 현포리 368(살강터)	1940년대	화통집
박만진	서면 남서리 148(남서)	1940년대	화통집
윤성진	서면 남서리 146-2(남서)	1940년대	화통집
신원수	서면 남서리 119(남서)	개척 초기	투막집+화통집
정기록	서면 남서리 103	1932년	투막집
김선임	서면 남서리 308(구암)	1940년경	화통집
이종해	서면 남서리 421(서당)	개척 초기	투막+화통집
정초일	서면 남양리 300(석문동)	1936년	화통집
이수철	서면 남양리 298(석문동)	1930년대	화통집
김기철	서면 남양리 222-5	1925년	화통집
손모익	서면 태하리 369-1(학포)	1940년대	화통집
이경백	서면 태하리 403-2(학포)	1940년대	화통집
대구천주 교회유지재단가옥	서면 태하리 400(학포)	1940년대	화통집
이옥순	서면 태하리 402(학포)	1950년대	화통집
손태준	서면 태하리 379(산막)	1930년대	화통집
김영호	서면 태하리 330(산막)	1940년대	화통집

경과 인문·사회적 성격에서 크게 다른 것에 그 요인이 있었다. 개척 초기에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벌목해 만든 투막집<sup>6)</sup>이 기둥을 세우고 심벽을 친 화통집<sup>7)</sup>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산림벌목의 금지 탓도 있지만 생업<sup>8)</sup>, 경제력, 가족제도, 주거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붕재는 새,

6) 통나무로 귀틀을 짜서 벽을 만든 집으로 투막집·투방집·귀틀집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의 산간지방이나 깊은 산골의 화전민촌 등에서 옛날에는 많이 볼 수 있던 집이지만 지붕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이기도 한다. 평북지방에서는 틀목집이라 부르고, 평남지방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 태백산맥계의 강원도나 경북지방에서는 투방집이라고도 부른다.  
7) 화통집은 기둥을 세우고 외가지를 엮어 짠 틀위에 흙을 바른 벽으로 된 집을 지칭한다.

너와, 굴피 등의 자연재료가 해방전후부터는 골함석으로 교체되었다. 우데기<sup>9)</sup> 재료도 새, 옥수수대가 내구성 좋고 가벼운 널판재나 골함석으로 바뀌었고, 출입문도 거적문에서 개폐가 용이하고 밝은 실내공간을 제공해 주는 유리미서기문으로 교체되고 문의 크기도 커졌다. 한편 산간오지에 위치한 민가들은 해변가나 읍·면내, 육지 등으로 이사 나가 대개 빈 집으로 남아 있어 자연적인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연구대상 및 시기는 울릉도에 현존하는 민가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1945년 이전에 건립된 민가를 선별조사하였다. 아울러 울릉도 민가의 시간적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밝히기 위해 1950년대에 건립된 민가도 선별해 포함시켰다. 현장조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울릉도 전역의 산간마을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현지인의 제보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가옥은 북면에 7가옥, 서면에 15가옥으로 총 22가옥이다.

### 3.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민가연구는 주로 유형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 각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평면적 특성에 따른 지역적 분류 둘째, 건물 몸체의 간살짜임에 따른 몸체의 열에 따른 분류 셋째, 바닥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넷째, 주거공간의 집중도에 따른 분류(하종한, 1992 : 69-84)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편 울릉도의 민가연구는 장보용 『한국의 민가』, 「울릉도의 누목식 민가」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울릉도에 이주한 개척민들이 본토와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가를 어떻게 변용시켰는가를

8) 해방 전부터 一般田作과 養畜, 養蠶이 농업경영의 3대요소가 되었다. 그후 1960년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양축, 양잠의 비중이 강화된 것은 물론 채소농가가 큰 비중을 가지고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때 산간 田作農業은 봄감자와 옥수수 및 대두의 3混作方式으로서 전통적인 자금적 一般田作農業方式이다. 그 외 자금적 전작 농업으로서 보리를 수확한 후 콩과 옥수수를 혼작하는 一年二毛作이다. 또 현포2리를 중심으로 마늘재배와 산간에 천궁, 질경의 약초재배가 성행했다.  
9) 우데기는 울릉도 민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물이다. 지붕의 처마안쪽에 여러 개의 기둥을 집 주위로 세우고 새(茅)로 이엉을 엮어 출입구를 제외하고, 그 기둥에 기대어 집 주위에 새벽을 친 것이다. 이는 防風, 防雨, 防雪, 遮蔭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실내의 채광과 통풍이 나쁜 단점이 있다.

규명하고자 나리리의 투방집을 대상으로 평면과 배치, 구조(지붕재료 및 형, 벽체, 우데기)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평면규모는 一자형에 3칸, 4칸형에 모든 기능이 몸체에 집중되는데, 이는 적설시에 옥내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파악했다. 또 나리리의 민가를 벽의 구조와 재료로 분류할 때, 투방집은 화전경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화전경작의 문화를 습득했던 주민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울릉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민가들을 발굴·조사하여 각 규모별 평면의 특성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어떻게 변용되어 갔고,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였다.

## II. 민가의 사례 및 분석

### 1. 입지 및 배치구성

#### 1) 입지

조사가옥 22가옥의 입지현황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가옥의 입지는 해발 350~435 m의 고지대인 나리분지<sup>10)</sup>에 5가옥, 해발 70~250 m의 산비탈이나 하천 상류의 계곡변에 17가옥이다.

나리분지는 고지대이긴 하나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탄지이고, 그 외 내륙지역은 대개 가파른 산비탈이다. 따라서 가옥은 주로 산비탈에 입지 한 경우가 많아 대지는 불규칙한 장방형이 많다. 그리고 농사가 가능한 계곡 상류의 골짜기를 따라 집들이 산촌을 이루며, 가옥간 거리는 대략 100~500 m에 이른다.

조사가옥의 입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원수 가옥<sup>11)</sup>은 서면사무소<sup>12)</sup>에서 남서편 상류

(북쪽) 약 1.3 km 지점에 위치한 남서리고분군 앞 민가를 지나 동쪽의 산비탈을 타고 350 m 가량 올라간 해발 190 m의 능선 중턱에 있는 독가이다. 주향은 전방의 바다가 잘 조망되는 남향이고, 집앞과 동쪽의 완만한 산비탈에는 화전개간한 계단식 밭이 있다. 이종해 가옥은 서면사무소에서 비파산 동쪽의 남양천을 따라 약 1.5 km 가량 올라간 해발 250 m의 계곡변 산촌인 서당마을<sup>13)</sup> 끝단에 동남향해 있다. 신원수, 이종해 가옥은 개척 초기에 지은 투막집에 후대 화통집으로 각기 공간을 확장한 예이다. 황부근 가옥은 해안도로에서 평리천 상류로 1.5 km 가량 올라간 해발 185 m 내외의 계곡변 산촌인 살강터마을<sup>14)</sup>에서 가장 오래된 화통집이다. 살강터마을은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능선을 따라 형성된 산촌인데, 육지의 농촌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가옥은 가파른 능선 하단에 있고, 우측의 계곡 양편으로는 초목으로 뒤덮인 계단식 화전이 남아 있다. 이 마을의 주생업은 채소, 약초 재배이고, 이웃 집과는 약 400 m 거리이다. 김영호 가옥은 태하2리 산막(삼막)<sup>15)</sup>에 위치하며, 북쪽 200 m 지점에 유일한 이웃인 손태준 가옥이 있다. 가옥은 나리분지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256~333 m의 험준한 침식곡 사이에 형성된 능선 중턱(해발 165 m)에 있다. 근년에 집 앞으로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험한 산간오지이었다. 주향은 바다를 향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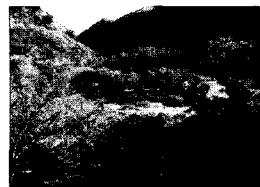


사진 1. 김선임 가옥 원경



사진 2. 황부근 가옥 원경

표 2. 가옥의 배치 및 입지현황

구분	배치형태				입지		
	一자형	二자형	ㄱ자형	ㄷ자형	분지내	산중턱	계곡변
棟	7가옥	4가옥	5가옥	3가옥	5가옥	11가옥	6가옥

10) 나리리는 고종 때 개척령에 따라 개척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정주한 사람들이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섬말나리 뿌리를 캐먹고 연명하였다고 하여 나리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개척당시 거주자 93戶에 500여명이 거주하는 집단 부락이었으나, 1977년 24호, 현재는 십여호가 남아 있다.

11) 주인이 수 차례 바뀌어 현 소유자는 12년전에 구입한 것이며, 신원수씨는 현재 남서리에 거주하고 있다. 조사당시 빈집이었다.

12) 西面은 성인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동해 앞에서 치솟은 비파산(해발 340 m)을 경계로 마을(南陽里·南西里)과 하천(南陽川·南西川)이 나뉜다.

13) 마을 중앙으로 관통하는 계곡 양편의 가파른 산비탈에 가옥 8호가 입지한 산촌이다.

14) 살강터마을은 바다에서 이 마을을 들어오다 보면 집은 보이지 않고 지형이 부위에 그릇을 엮어 놓은 선반인 살강갈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산촌이다.

15) 산막 또는 삼막마을은 옛날에 막을 치고 삼을 깨던 곳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조사당시 김영호씨는 저동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당시 빈집이다. 가끔 밭에 일하러 오곤 한다.

남향이고, 집 앞으로는 화전개간한 계단식 밭이 남아 있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는 성인봉에서 사방으로 뻗어 내린 험한 능선이나 침식곡을 따라 화전개간하고, 그 주변에 집을 짓었다. 이때 발농사시에 파종과 수확의 공동작업과 주민들간에 최소한의 사회교류가 필요해 집에 따라 3호에서 10호정도의 산촌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입지는 일차적으로 지리·자연환경 탓도 있지만 생업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울릉도 민가의 배치구성

우리나라의 전통민가는 하나의 주거내에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되는 배치양상을 가진다. 울릉도는 육지의 안채와 같은 주공간을 이곳 주민들은 “몸채”라고 부르며, 몸채 주위로 배치된 마구, 헛간, 창고, 변소 등의 부속건물을 총칭하여 이곳에서는 “부속채”라 부른다.

울릉도 민가의 배치형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민가형태의 분류인 一자형, 二자형, ㄱ자형, ㄷ자형 4종류가 있다. 이들 중 몸채 위주의 一자형 홑집이 7가옥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몸채에 붙여 마구나 창고를 달아낸 ㄱ자형이 5가옥, 몸채 주변에 부속채를 둔 二자형 4가옥, 뜰 ㄷ자형 3가옥이다. 몸채의 주향은 서북향(나리투막집 민속자료제56호, 이경백), 남서향(나리투막집 민속자료제55호·57호, 정초일), 북서향(나리투막집 문화재자료제182호, 황부근, 김기철), 북향(최수현), 서남향(박만진, 윤성진, 김영호), 남향(신원수, 정기록), 서향(김선임, 이옥순, 손모익), 동남향(이중해, 이수철), 남동향(손태준)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배치형태는 일반적으로 배산임수한 곳에 남향배치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울릉도는 섬 중앙에 솟은 성인봉에서 사방으로 뻗어 내린 지형 탓에 남향을 준수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지형조건의 상황에서 민

가의 좌향은 생업지 주변의 지형지세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었고, 대지이용율도 육지의 민가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또 민가의 진입방식은 측면진입이 11가옥, 전면진입이 9가옥, 후면진입이 2가옥 순으로 나타났다. 대개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집들이 들어선 산촌이므로 민가는 계곡을 건너거나 산비탈을 타고 접근하므로 측면진입이 많았다. 또 정면진입은 측면으로 진입한 후에 주 출입구만 정면에 둔 경우이다. 이때 잠실이나 부속채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에 인접시켜 배치된 경우가 많다. 또 부속채를 주로 정지 앞쪽으로 배치시킨 것은 많은 눈이 내리는 긴 겨울과 산전위주의 생업에서 작업과 관리, 그리고 주생활과의 합리적인 기능적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보여진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에서 배치구성은 대체로 부속채가 발달되지 못하고 모든 주생활이 몸채에 집중되는 평면유형이 뚜렷하다. 즉 몸채는 생활공간과 수장공간이 하나의 주거공간에서 수용되도록 끊임없이 변용되어 온 결과이다. 이때 마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건물이 안마당을 둘러싸는 육지 민가의 중정형은 거의 없고 어설픈 분산형에 담장을 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풍토환경에 따라 생업형태뿐만 아니라 주거형태 더 나아가 배치형태와 좌향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2. 울릉도의 민가형

### 1) 몸채의 평면형태

울릉도 민가의 평면형태를 분류하면 표 3처럼 규모, 유형, 가옥 수를 알 수 있다. 몸채의 평면은 규모별로 분류하면 3칸, 4칸 5칸형이 있고, 형태는 一자형에 유형은 홑집이 기본형이다. 이러한 기본형은 후대 방, 잠실, 마구, 창고 등 부족한 공간을 증설하여 ㄱ·ㄷ자형으로 변형·발전되기도 한다. 울릉도에서 조사된 민가를 평면특성과 규모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칸형]

3칸형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우테기를 둔 폐쇄적인 형태를 이룬다. 이런 평면은 정지+큰방(또는 안방)+가방(또는 잠실)를 갖춘 것으로 최소한의

13) 마을 중앙으로 관통하는 계곡 양편의 가파른 산비탈에 가옥 8호가 입지한 산촌이다.

14) 살강터마을은 바다에서 이 마을을 들어오다 보면 집은 보이지 않고 지형이 부위에 그릇을 얹어 놓은 선반인 살강갈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산촌이다.

15) 산막 또는 삼막마을은 옛날에 막을 치고 삼을 깨던 곳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조사당시 김영호씨는 저동에서 거주하고 있어 조사당시 빈집이다. 가끔 밭에 일하러 오곤한다.

표 3. 몸체의 평면형태와 공간구성

규모	3칸형	4칸형	5칸형
규모	3가옥	11가옥	8가옥
유형	홀집	홀집	홀집
형태	一자형, ㄱ자형	一자형-9가구, ㄱ자형-1가구	一자형
평면	정지+방2칸	①정지+방3칸-7가구 ②방+정지+방2칸-2 가구 ③마구+정지+방2칸- 1가구	①정지+방4칸 ②창고+정지+방3칸 ①정지+방2칸+마구 ②마구+정지+방3칸 ③방+마루+방2칸+정지 ④헛간+방+정지+방2칸 ⑤방2칸+정지+방2칸
가옥명	이경백, 정초일, 나리리 문화재자료 제182호	나리리 민속자료 제56호·57호, 문화재자료183호, 정기록, 황부근, 이종해, 대구천주교 회유지재단, 박만진, 김기철, 이옥순, 손모익	최수현, 김선임, 나리리 민속자료 제55호, 신원수, 손태준, 김영호, 이수철, 윤성진

일상생활을 위한 막살이계의 소농층 민가에 속한다. 형태는 몸체 위주의 一자형과 몸체에 붙여 마구가 보방향으로 확장된 ㄱ자형으로 분류된다.

<사례 1> 정초일 가옥<sup>16)</sup>

평면은 좁은 앞마당을 앞에 둔 정지+큰방+잠실의 3칸 一자형 홀집에 화통집이다. 내부공간은 주생활과 수장공간이 통합된 탓에 여유공간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몸체 사방으로 우데기<sup>17)</sup>에 의한 축담이 그나마 부족한 공간을 보완해 준다. 간살은 정지 큰방이 9尺, 잠실은 12尺으로 잠실이 큰방보다 꽤 넓은 편이며, 잠실은 전면 축담에 아궁이가 별도로 설치된 점이 특이하다. 즉 잠실은 해방 전부터 누에를 치던 방으로 난방은 필요할 때만 하고, 세심한 온도 조절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아궁이를 두었다. 방벽과

우데기의 사이공간인 축담<sup>18)</sup>은 폭이 1.2 m 정도로 육지의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릉도 자생의 환경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이 크다. 우데기는 강풍과 많은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집안으로 들어치는 눈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발농사 위주의 생업에서 실내작업, 각 방으로의 통로, 각종 자재도구의 수납과 땀감저장등 한정된 내부공간에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울릉도 3칸형은 이중해·신원수 가옥에 남아 있는 정지+방의 2칸형 투막집을 모태로 다양한 주거유구, 주생업의 전환이 반영되면서 방을 도리방향으로 1칸 더 늘려서 부족한 공간을 확장시킨 형태이다. 사실 3칸형은 주생활공간과 수장공간이 공유하는 자족적인 생활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막살이집계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때 공간확장은 두 가지로 발전되었는데, 하나는 가족의 수가 증가하였거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필요한 실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한 것이다. 해방 전부터 기존 방을 잠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1970년경에 정지 앞으로 마구 1칸을 보방향으로 확장시켜 다양한 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데, 이경백 가옥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특히 3칸형은 대개 부속채 없이 몸체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고, 울타리는 없거나 방풍목을 심어 울타리 대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 내부의 방 사잇벽에는 서로 드나드는 출입문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각 방의 보온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 내 축담에는 식량 저장공간인 뒤주가 예외없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많은 눈과 긴 결빙기간을 가진 겨울철에 외부와 완전히 두절되는 주거환경에서 식량을 확보하고 저장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방 전면의 축담상에는 각 방으로 드나들기 쉽도록 쪽마루를 둔 곳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근년에 설치한 것들이다.

[4칸형]

이 유형은 ㉠ 정지 + 큰방(안방) + 머릿방(복판방) + 사랑방(잠실 또는 갓방) ㉡ 마구간 + 정지 + 큰방 + 머릿방 ㉢ 사랑방 + 정지 + 큰방 + 갓방 등으로 나뉘며, 벽

16) 잠실 천장의 고미반이 바닥에 “歲在丙子閏二月十一日立柱上梁”이라고 쓴 상량문이 있어 1936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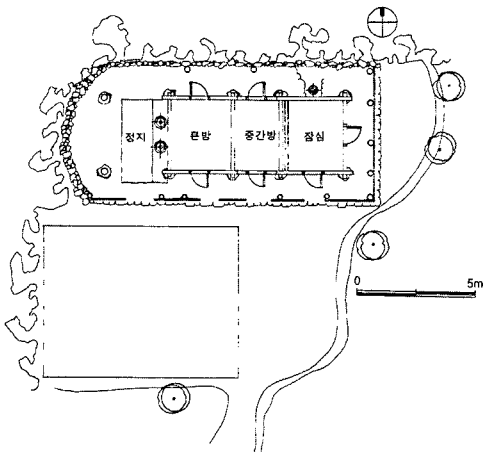
17) 우데기는 울릉도 민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물이다. 지붕의 처마안쪽에 여러 개의 기둥을 집 주위로 세우고 새(茅)로 이엉을 엮어 출입구를 제외하고, 그 기둥에 기대어 집 주위에 새벽을 친 것이다. 이는 防風, 防雨, 防雪, 遮陽의 기능을 갖지만 실내의 채광과 통풍이 나쁜 단점이 있다. 재료는 새, 합석, 판재이다.

18) 축담은 방벽과 우데기와의 사이공간을 가르키며, 일종의 완충공간에 해당된다. 축담의 폭은 1.2~2.0 m이고, 용도는 통로·작업·저장·생활공간이 된다. 남서리 노인들은 신을 벗는 곳이라 해서 “축담”이라 부른다고 한다.

체 구조로는 투막집과 화통집으로 나뉜다.

<사례 1> 정기록 가옥

이 집은 남서천 중류의 천변에 자리잡은 민가로 1931년경 수해로 집이 유실되자 그 이듬해에 윗쪽 투막집을 이진한 것이다. 평면구성은 정지+큰방+중간방+잠실로 구성된 一자형 홑집이다. 이런 민가형은 3칸형을 기본으로 방 1칸을 도리방향으로 확장시킨 유형이다. 증설된 방은 대개 해방 후 양잠이 성행할 때 누에를 치기 위한 잠실이다. 간살은 중간방만 6.6尺으로 작고, 그 외는 9尺이다. 몸채 사방으로는 폭 1.1m의 축담에 널판재를 댄 우데기를 설치해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장시켰다. 이는 부속채가 없는 평면구성에서 모든 주생활이 몸체에 통합되는 주환경에서 우데기는 매우 쓸모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각 방 출입문은 맞통풍을 고려해 전·후면으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통나무 벽체를 잘라내고 양측에 문설주를 세운 다음 외여단이 죽살문을 달아 축담에서 출입한다. 정지 출입문은 전면 우데기에 달았고, 각 방간에는 출입문을 내지 않았다. 한편 잠실의 아궁이는 뒤편 축담상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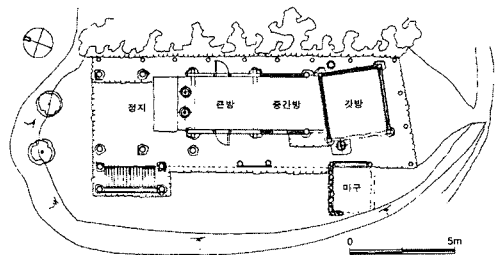


도면 1. 정초일 가옥 배치평면도

<사례 2> 이중해 가옥

이 가옥은 위낙 가파른 산비탈에 입지한 탓에 부속채를 둘 여유공간이 없고, 마당도 없다. 평면은 정지 1칸에 방 3칸을 연속으로 배열하였고, 벽체구성은 큰방만 투막집이고 나머지는 화통집이다. 이렇게 벽체구성이 서로 다른 것은 개척 초기에 정지(8尺)+큰방(10尺)의 2칸 투막집이던 것이 해방 전후쯤에 중

간방과 1970년경에 갓방(잠실)을 도리방향으로 화통집을 증설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개척 초기에 지은 것으로 전하는 신원수 가옥의 변화양상과 비슷하다. 개척 초기에 정착민의 정착배경과 지리 및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업형태가 주생활 및 생업의 변화에 따라 가옥형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정지는 다른 면보다 도리방향으로 우데기를 넓게하여 이곳에 겨울철 취사 및 난방에 필요한 딸감저장이나 식량 및 수장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정지 앞쪽으로도 방 앞쪽의 우데기보다 1.6m 가량 더 돌출하고, 이곳에 투박하지만 고식결구가 돋보이는 큰 뒤주가 놓여져 있다. 뒤주에는 주로 식량이나 곡식을 보관하며, 주부가 이용하기에 편한 정지에 주로 설치하였다. 정지 바닥은 아궁이 부분만 축담 바닥보다 70cm 가량 파내고 방쪽으로는 솔 2개를 걸은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중간방(8尺)은 해방 전후에 큰방의 통나무 벽체에 잇대어 두리기등을 세우고, 심벽을 친 화통구조이다. 또 갓방은 1970년경 네모기둥에 심벽을 친 화통구조인데, 벽체가 중간방 벽에서 약 1.1m 가량 이격되어 있고, 전면 벽도 1m 가량 돌출된 상태에 축도 10° 가량 틀어져 있어 후대 각기 다른 시기에 증설된 흔적이 뚜렷하다. 그리고 갓방 앞으로는 우데기 벽 일부를 제거하고 여기에 소죽가마를 건 토석집의 마구를 1970년경에 증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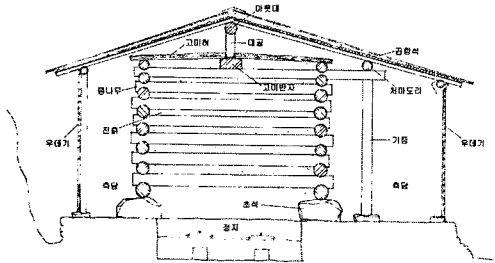


도면 2. 이중해 가옥 배치평면도

한국민가에서 4칸형은 크게 대청이 삽입된 경우와 대청이 없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조사된 울릉도의 4칸형 10가옥 중 대청을 둔 가옥은 하나도 없다. 다만 황부근·김기철·이옥순 가옥은 방 앞의 축담에 쪽마루를 두었고, 박만진 가옥은 유일하게 뒷마루가 있다. 이때 방 앞의 쪽마루와 뒷마루는 방 사이에 서로 통하는 문을 내지 않은 평면에서 방간의 출입에 편리함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휴식, 간단한 실내작업에 쓸모 있다. 그러나 쪽마루 설치는 각 가옥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1960년 이후의 화통집에서만 설치되었다.

방문은 맛통풍을 고려해 앞뒤의 축단쪽으로 마주 보게 내었다. 또 우데기에 의한 축단은 날씨가 나쁘거나 겨울철에 실내작업이나 수장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요긴한 공간이다. 이때 벽체구성 및 재료면에서는 투막집 4가옥, 화통집 5가옥으로 서로 비슷하고, 투막집에 화통집이 증설된 경우도 1가옥이다. 이때 각 가옥은 부속채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몸채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며, 외부에 대해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취한다.



도면 3. 이중해 가옥 종단면도

울릉도 4칸형의 변화양상을 보면, 먼저 나리동 투막집(민속자료제57호)은 3칸형을 기본형으로 정지 옆에 마구간 1칸을,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소속 가옥은 정지 옆에 잠실 1칸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하였다. 또 이옥순, 황부근, 이중해, 김기철<sup>19)</sup> 가옥은 3칸형에 잠실 1칸, 박만진<sup>20)</sup> 가옥은 해방 전에 다른 집을 뜯어와 지은 것으로 사랑방과 마구 각 1칸씩을 보방향으로 확장한 보기드문 7자형이다. 이처럼 4칸형은 개척 초기의 2칸 투막집에서 방 1칸이 증설된 3칸형을 기본으로 해방 전후부터는 발농사위주에서 양잠, 양축, 채소 및 약초재배 등의 주생업이 바뀌었고, 가족수가 증가되면서 기존 방 옆으로 방이나 잠실, 마

구 등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하는 단조로운 1자형의 홑집유형을 취한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우리나라 남부형 또는 영남지방의 4칸 1자형 홑집과 유사하다. 그러나 울릉도 민가는 대청없이 온돌중심의 바닥구조, 우데기에 의한 폐쇄적인 이중외피구조와 축담에 의한 공간확장, 주생활과 수장공간이 몸채내에 공유하는 자족적인 평면구성 등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영남 북부 또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화전 민가의 특성을 발견할 있다. 그 이유는 험준한 산간지역과 자연적 풍토에서 외부와 차단된 주거환경 그리고 발농사 위주의 생업, 경제력,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형성된 주문화권이 서로 공유된 결과로 보여진다.

[5칸형]

5칸형 평면형태는 크게 1자형과 7자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1자형은 정지에 방 4칸을 연달아 배치하거나 정지 또는 방 옆으로 마구가 배치되는 단조로운 1자형의 홑집구성이다. 7자형은 ㉠창고+정지+방+방+잠실의 5칸 1자형에 창고 앞으로 부속채(마구간+변소)를 보방향으로 증설한 경우 ㉡잠실+사랑방+정지+방+방에 잠실 앞으로 마구와 창고 2칸을 보방향으로 증설하였다. 이처럼 5칸형은 대개 정지+방+방의 3칸형을 기본으로 기존 정지나 방 옆으로 잠실, 방, 창고 등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하였고, 일부 가옥은 기존 정지 옆의 방 앞으로 창고나 마구를 보방향으로 확장하여 변화하는 주생활과 생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례 1> 신원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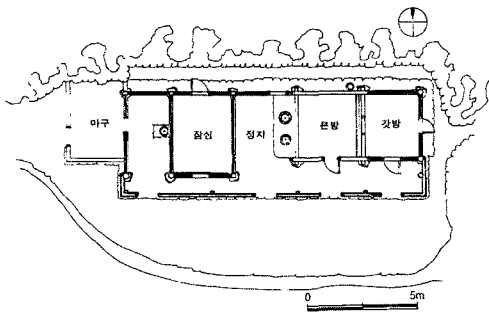
이 집은 마구+잠실+정지+큰방+갓방의 5칸 1자형 홑집이고, 마구를 제외한 정지와 방벽 앞쪽으로는 폭 1.7m의 축담에 판자를 낸 우데기가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부속채가 없어 모든 주생활 기능은 몸체에 수용된 폐쇄적인 공간특성을 보여준다. 벽체구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큰방 1칸만 투막집이고 나머지는 화통집이다. 이러한벽체구조의 차이는 개척 초기에 정지와 방 1칸의 투막집을 짓어 살다가 1945년<sup>21)</sup>에 기존 큰방 옆으로 갓방, 정지 좌측으로는 잠실과 마구를 각기 화통집으로 증설한 결과이다. 이처럼 도리방향으로의 확장단서는 ㉢잠실 전면 벽체가 큰방보

19) 김기철(본관 : 김해, 고향 : 경북 경산시 자인면)가옥은 1925년 경에 건립된 집이다. 잠실은 천장 고미반이 바닥에 “乙丑七月二十三日…”라고 쓴 묵서 상량문이 남아 있어 1949년에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박만진씨의 고향은 울산이며, 조부(고향은 경주)때부터 나리분지에 살다가 북면 현포리로 이사와 잠시 살다가 1940년경에 남서리로 이사와 집을 짓었다. 조사당시에 박만진씨는 남양리 통구미에 살고 있어 빈집이었다.

21) 사랑방 내부의 천장 고미반이 바닥에 “歲在乙酉七月十七日午時立柱上樑 一應天三之光 備人間之五福” 라고 쓴 상량문이 남아 있다.





도면 4. 신원수 가옥 배치평면도

다 80 cm 가량 돌출된 점 ㉠방 천장의 고미반이의 방향이 정지와 큰방은 동서방향이나 증설 공간은 남북방향인 점 ㉡큰방과 증설된 갓방과의 사이벽에 출입문이 막음된 점 ㉢큰방은 죽살문이나 증설공간은 세살문·미달이 문이라는 점 등에서도 확인된다. 정지(9尺)는 우데기가 벽체를 대신하였고, 큰방 쪽으로 설치한 부뚜막에는 숯 2개를 걸었다. 정지는 우데기까지 공간이 확장된 터라 수장공간으로 쓸모가 있다. 갓방은 큰방옆으로 두리기등을 세워 심벽을 친 화통구조이다. 기존 정지 옆으로는 잠실을 증설하였고, 잠실 옆으로는 폭 2.0m의 축담을 두었다. 이 축담에 잠실용 아궁이가 있고, 축담 바깥에는 마구를 근년에 증설하였다. 큰방 가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귀틀벽체 최상단의 통나무를 약 1m 가량 빼낸 끝단 위에 지름 10 cm 내외의 통나무를 처마방향으로 걸쳐서까래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처마가구는 이중해, 최수현 가옥에서도 볼 수 있고, 강원도 산간지대의 소수 화전민 가옥<sup>22)</sup>에서도 확인된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띠집을 해방 이전쯤에 너와집으로 개량하였고, 해방 후에는 마늘농사로 형편이 나아지자 골합석으로 다시 개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 5칸형 민가의 평면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수현 가옥<sup>23)</sup>은 1920년에

정지+방+방의 3칸 투막집을 짓고 살다가 1960년경 기존 방 옆으로 방 2칸을 화통집으로 증설하였다. 김영호 가옥은 3칸형 화통집에 방 옆으로 쪽마루(4尺)를 둔 평면에서 도리방향으로 잠실 1칸을 증설하여 쪽마루가 마치 육지 민가의 대청처럼 느껴진다. 김선임 가옥은 기존 잠실 옆으로, 나리리 민속자료제 55호 너와집은 정지 옆으로 각기 마구를 도리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킨 유형이다. 손태준 가옥은 큰방 옆으로 잠실을, 정지 옆으로는 창고 각 1칸씩을 증설한 화통집이다. 그리고 창고 앞으로는 마구와 변소를 토담으로 달아내어 평면이 7자형으로 변화하였다. 이수철 가옥은 정지 옆으로 사랑방+잠실 2칸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하고, 잠실 앞의 보방향으로는 창고 4통칸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5칸 평면구성은 3칸형 투막집·화통집을 모태로 정지나 큰방 옆으로 잠실, 마구, 창고 등을 도리방향으로 증설한 7자형과 여기에 다시 창고나 마구를 보방향으로 더 확장시킨 7자형의 온돌중심형 홑집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이 울릉도의 민가는 본토와 문화적 교섭이 크게 제약된 탓에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주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문화권의 형성에는 지역의 자연환경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주생업, 사회·경제력도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평면은 몸체 위주로 주생활과 수장공간이 복합화된 폐쇄적인 공간구성을 취하며, 일부 가옥은 부속채를 두거나 공간을 확장하여 중상류층의 가옥형으로 변화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마루없이 온돌중심의 4칸·5칸 7자형 홑집은 영남지방 뿐만 아니고 호서지방이나 여타 지방에서도 분포하는(조성기, 1985 : 85쪽) 민가형이다. 특히 평면구성과 확장과정을 보아서는 영남지방의 민가계열중에 3칸 막살이 집을 기본형으로 생업의 변화에 맞추어 방, 잠실, 창고 등을 도리방향으로 확장시킨 유형에 속한다. 특히 마루가 없는 온돌중심의 4, 5칸형 홑집에서 정지나 창고에 붙여 보방향으로 마구를 달아낸 유형은 경북 북부의 산간지방 민가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은 한정된 지역 또는 육지와 일정한 주문화권의 연속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는 자연환경과 여기에 적용한 화전경작의 생업뿐만 아니라 주생활·가족수 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몸체 위주의 내부공간에서 모

22)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단임의 3칸 귀틀집인 김완택 가옥에서 볼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삼척군·평창군·정선군』, 1994)

23) 조사당시 최수현(본관 : 경주, 80세)씨는 서면에 살고 있어 빈집이었다. 현 소유자가 8세때 나리리에서 이곳에 이사왔다. 큰방 고미반이 바닥에는 “庚申年元月二十七日未時立柱上樑” 상량문이 남아 있어 1920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정지+방 2칸의 너와집을 1960년경에 방을 횡적 증설하고, 일부 개조하였다. 이때 지붕도 너와지붕에서 골합석으로 개량했다.

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을 꾸준히 변용시켜 온 결과이다.

2) 부속채의 배치와 평면구성

우리나라 민가에서 부속채는 일반적으로 농작업공간과 절객 및 사랑채 공간 혹은 부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울릉도 민가에서 부속채의 배치구성은 몸체에 연장된 경우와 별동으로 배치된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정지나 창고, 방 앞에 붙여 달아낸 것이다. 이들의 배치유형을 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①은돌방+창고(이수호)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마구+방 또는 두지+헛간(황부근) ㉡변소+창고(김기철·이옥순) ㉢변소(나리동너와집 민속자료 제55호·나리동투막집 3동) ㉣마구+헛간(나리동투막집 문화재자료제183호), ㉤헛간+변소(김선임, 최수현) ㉥헛간과 변소가 각기 별동(김영호, 손모익)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몸체의 공간확장과 더불어 별동의 부속채가 둔 경우는 이경백(몸체·마구, 부속채·변소), 손태준(몸체·마구+변소, 부속채·마구), 박만진(몸체·방+마구 가옥, 부속채·방앗간) 등이 있다. 이들 부속채 규모는 대략 1칸~3칸 정도로 소규모이다.

몸체 전면에 부속채가 별동으로 배치된 경우는 비교적 험한 산간 오지이나 대지조성이 비교적 용이했거나, 나리분지처럼 평탄지에 입지한 경우이다. 이때 몸체와 부속채의 이격거리는 대략 1~5m 정도이고, 그 사이는 작은 마당이 조성된다. 부속채가 몸체 주변에 별동인 경우는 대개 가파른 산비탈이나 계곡변에 입지한 경우이며, 이때 마당도 없다. 마당은 생산, 작업, 의식, 휴식, 통로 등의 기능을 가지는데, 울릉도 민가의 마당은 통로나 휴식기능이 강하다. 특히 가파른 산비탈에 입지한 민가에서 집 앞에 작은 마당이라도 두려면 불가피하게 몸체를 뒤편으로 바짝

붙여 배치해야 했다.

울릉도 민가의 부속채는 밭농사나 채소(약초·산채), 축우, 양잠등 가구별 생업 비중의 변화에 맞추어 마구, 헛간, 창고 등을 입지상황에 따라 몸체에 달아내거나 몸체 주변에 지어 부족한 내부공간을 적절히 보완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3. 민가의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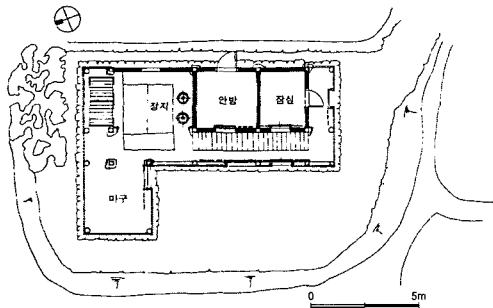
앞서 살펴 본 울릉도의 민가형을 서로 비교조사해 보면 이들 민가형의 발생 배경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울릉도 민가는 기본적으로 주생활과 수장능력이 공존하는 폐쇄적인 공간내에서 공간확장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과 변용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조사된 민가들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몸체 위주의 공간구성에서 규모 확장은 칸수를 주로 도리방향으로만 확장해 필요한 내부공간을 확보하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옥은 정지나 창고에 붙여 보방향으로 마구나 창고등을 증설해 주생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둘째, 울릉도의 자연환경에서 주거공간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적 요소와 상호 일체화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었다. 즉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처마를 따라가며 가는 기둥을 세우고 옥수수대나 널판재, 골함석으로 벽을 친 우데기에 의한 축담으로 내부공간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우데기는 울릉도의 자생적 환경설비로 독특한 자연환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몸체 위주의 공간구성에서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했다.

셋째, 몸체 이외에 부속채를 두어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생활에 따라 마구, 창고를 몸체에 달아내거나 별동으로 짓는 방법을 사용되었다. 부속채의 위치는 민가의 입지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었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는 대체로 부속채가 발달되지 못하고 모든 주거공간이 몸체에 집중되는 평면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육지의 민가처럼 주생활과 수장공간간에 일정한 규범성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마구, 뒤주, 헛간, 창고 등을 몸체내로 통합시켜 주생활과 수장공간이 공유되는 경향이다. 이는 울릉도의



도면 5. 이경백 가옥의 마구 증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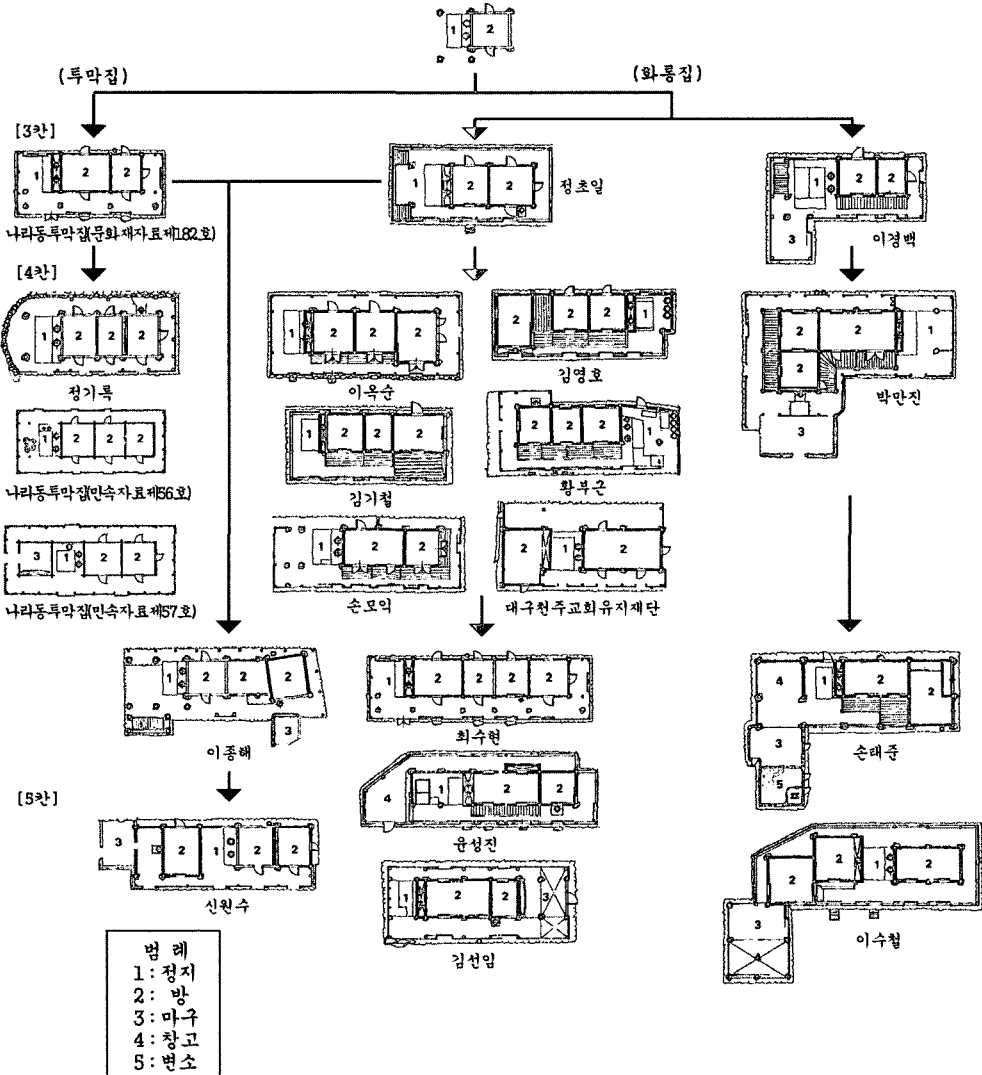


그림 1. 울릉도 민가의 몸체 발전상정도

자연환경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생업, 주거욕구 등도 이들의 변화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칸형에서 출발한 다양한 민가형들은 기본적으로 험한 산간지역에 한정된 대지와 공간에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한정된 내부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공간이용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이었다. <그림 1>은 이러한 민가형들이 규모별 가옥별, 벽체 구조별로 발전해 온 과정을 상정해 본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울릉도 민가의 모태는 투막집이 남아 있는 이종해·신원수 가옥의

2칸형, 최수현 가옥의 3칸형이다. 이를 모태로 먼저 방, 잠실, 마구 등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해 3칸형, 4칸형, 5칸형의 一자형 투막집·화통집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축담에는 방으로 드나들기 쉽도록 쪽마루가 후대 증설되는데, 화통집에서만 설치되었다. 두 번째는 보방향으로 확장되는 경우인데, 주로 양축을 위한 마구와 60년대 약초 및 채소재배가 시행하면서 건조, 저장 그리고 농자재보관을 위한 창고, 변소 등을 1칸에서 3칸까지 확장하여 一자형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확장은 도리방향과 보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대개 도리방향으로 공간확장이 우선

진행된 뒤에 보방향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몸채 주변의 대지조건에 따라 농사용 부속채를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 III. 결 론

울릉도 민가 22동을 조사해 입지, 배치, 민가형의 특성과 변화양상 그리고 변화의 요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울릉도 민가는 섬 중앙의 성인봉에서 사방으로 뻗어 내린 자연환경에 계곡이나 산골짜기, 능선에 화전경작으로 정착한 탓에 대부분 산촌을 이룬다. 이러한 입지로 인해 주향이 남향을 준수한 경우는 거의 없고, 진입은 측면진입이 대부분이다.

2. 울릉도 민가형은 험준한 산간지역에서 외부와 비교적 고립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모든 주생활이 몸체에 집중되도록 주거공간을 꾸준히 변용시켜 온 독특한 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때 울릉도 민가는 2칸형 투막집을 모태로 가족수의 증가, 생업의 변화 등으로 방, 잠실, 마구 등을 도리방향 또는 보방향으로 확장해 3칸형, 4칸형, 5칸형의 투막집·화통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마루가 없는 온돌중심의 4, 5칸형은 영남지방의 민가 계열중에 3칸 오막살이 집을 기본형으로 한 것으로 여타 지방에서도 분포하고 있는 유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몸체에 창고, 마구, 헛간을 붙여 달아낸 유형은 경북 북부 또는 강원도 산간지방의 민가 특성과 일치한다. 이는 육지의 민가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주생업 그리고 주생활·가족수 등의 변화에 대응해 공간구성을 적절히 변용시켜 온 결과를 보여준다.

3. 부속채는 발농사나 채소(약초·산채), 축우, 양잠 등 가구별 생업의 비중이 변화될 때 마구, 헛간, 두지, 창고 등 저장과 사육을 위한 공간을 가옥의 입지상황에 따라 몸체에 달아내거나 몸채 주변에 부속채를 지어 부족한 내부공간을 적절히 보완하려는 성

향을 보였다.

4. 몸채 위주의 주거공간에서 생업 또는 가족수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다. 먼저 몸체의 확장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몸체의 칸수를 1칸에서 3칸까지 도리방향으로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때 몸체는 3칸형을 모태로 일차적으로 방이나 창고, 잠실 등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한 뒤에 2차적으로 방, 창고, 정지에 붙여 보방향으로 재차 확장한다. 둘째,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처마를 따라가며 가는 기둥을 세우고 옥수수대나 널판재, 골합석으로 벽을 쳐서 내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이 시설을 우대기라 부른다. 이는 강풍과 많은 눈이 내리는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대비한 다용도시설이지만 몸채 위주의 자족공간에서 부족한 공간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생적 방법이기도 했다.

이처럼 울릉도의 민가는 도서에 산간지역이라는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몸체 위주의 폐쇄적인 가옥형태에 수장공간까지 통합된 자족적인 민가형을 이룬다. 그리고 생업여건에 따른 경제성과 육지와의 인문·사회적 관계의 수용정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형태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 참 고 문 헌

1. 경북대학교·울릉도, 독도종합학술조사단(1977), 「울릉도·독도답사기요」.
2. 장보웅(1981),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3. 울릉군(1989), 「울릉군지」.
4. 국립민속박물관(1994),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삼척군·평창군·정선군」.
5. 서울대학교박물관(1998), 「울릉도-고고학적조사연구」.
6.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98),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7. 강영환(1991), 「한국주거문화의역사」, 기문당.
8. 조성기(1985), 「한국남부지방의민가에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接受: 2004. 6. 27)